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17일(금)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노동정책 담당관	담당자	• 노사협력팀장 유종우 ☎ 440-4407 • 담당자 김준희 ☎ 440-4411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도 시 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와 민주노총, 노동 존중 인천시 만들기 ‘맞손’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노정 정책간담회 개최 -
-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존중 인천시를 만들기 위한 협조 체계 구축 선언도 -
- 박 시장, 노정 간 든든한 협력관계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당부 -

인천광역시는 17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와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노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및 산별 지역노조 노동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하철 공공성·안정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보건인력 업무부담 경감 ▲근로자 세탁소 설치 ▲자동차 포럼 개최 등 5개 중점 요구안을 포함한 38개 안전을 제시하고 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가능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안이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존중 인천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정 협조 체계 구축을 선언하는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2월 3일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와 20개의 노정 정책 협의 안건을 다루고 지역 내 고용·노동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올해 7월 노동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노동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총에서 제안 해주신 내용을 세심히 살펴 바로 반영 가능한 부분과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 할 부분을 나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노정 간 든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인천’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붙임> 협력 선언문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노정 정책협의 협력 선언문

인천광역시-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는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 실현을 위해 2021년 진행된 노정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2021년 노정 정책협의를 토대로 노동존중 행정구현, 민주적 노정관계 정착, 인천시 노동정책의 확대·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차별 해소, 민간위탁 제도 개선 등 인천시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중대재해 근절, 안전한 일터,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4.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장, 처우개선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인천시 노동정책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5.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강화와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 및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의료·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견인하는데 함께 앞장선다.

6. 기술혁신·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이 시민의 삶과 노동시장의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며 탈탄소정책 강화, 시민과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협력적으로 준비해 나간다.
7. 노동존중의 민주적 노정관계 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1년도 노정협의 요구안건 중 추가협의를 필요한 안건은 실무회의와 담당부서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합의된 사항들의 실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8. 인천광역시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는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 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인천 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

2021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박남춘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
이인화

박남춘 *이인화*